

【 해외금융뉴스: 복미 】

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해야

□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 수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보험 전문 평가 기관 에이엠 베스트(A.M best)는 전염병의 발생이 보험산업에 여러 가지 경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며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함.

- 전염병의 발생은 일차적으로 보험금 지급건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전염병에 의한 경기악화로 투자환경도 악화될 수 있음.
- 미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1918년 스페인 독감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190만 명이 미국에서 사망할 수 있으며, 1957년과 1968년 같은 전염병에도 20만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.
- 또한 미국보험정보원(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)은 1918년과 같은 규모의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1,300억 가량의 추가적인 사망보험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1957년과 1968년 규모의 경우 310억 달러의 청구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.

□ 심각한 전염병의 발생은 생명보험 외에도 건강보험, 임원배상책임보험, 종업원 산재보험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망관련 대재해 채권에 대한 관심을 촉진할 수 있음.

-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과 의사의 수용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보험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건강보험사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- 만약 어떤 회사가 전염병에 의한 회사 수익성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거나 질병 확산을 숨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원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도 발생할 수 있음.
- 또한 종업원이 직장에서 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종업원 산재보험의 보험금 지급건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, 전염병의 확산은 스위스리, 유니크리, 악사, SCOR RE 등에 의해 발행된 바 있는 사망관련 대재해 채권의 발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.

(Insurance News Net, 5/4)